재개발·재건축 6만가구 공급… 명품 주거단지 조성

영등포구, 고도 제한·용적률 상향등 규제 완화

영등포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서울 도심 속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 지역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6만623가구의 대규모 공급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 공급 규모는 ▲신길·영등포본동 2만7233가구 ▲양평·당산·문래·영등포동 1만3437가구 ▲여의동 1만1515가구 ▲도림·대림동 8438가구 순이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길·영등포본동은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했으며, 최고 35층, 586가구로 탈바꿈한다.

신길제2·15구역에서도 약 5100가구 이상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

또한 노후도가 높은 '영등포역 인근' 역시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돼 최고 48층 3366가구의 압도적인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양평·당산·문래·영등포동 권역은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상향되면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양평동 신동아, 문래동 국화, 당산동 한양아파트와 영등포1-11·12·13구역 등 노후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여의동 또한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힘입어 재건축에 탄력이 붙고 있다. 광장28·삼부아파트는 각각 1314가구, 1735가구로 대단지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무 상업 비율 완화로 일반상업지역 최대 90%, 준주거지역 최대 100%로 주거 비율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 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도림·대림동 권역은 도림1구역과 대림1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대림동 청년주택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권역 전체 총 8400여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6만가구 공급 계획은 영등포구가 서울의 핵심 주거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녹지와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강동구, 구립어린이집 신축등 6개 사업 속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9억7800만원 확보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6년 상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9억7800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안전한 보행·도로 환경 조성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구립고덕2어린이집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성 확보가 시급했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인근 임차 건물에서 운영 중인 키움센터를 한곳에 통합해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구는 보육과 돌봄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동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2억800만원)'도 추진된다.

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수공사 등 보훈회관의 내외부 환경을 정비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녹지 정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구는 '노후 도로 파손 구간 정비 등 도로 안전 환경 조성 공사(9억5000만원)'를 통해 지역내 도로에 파임이 생기거나 파손이 심한 구간을 재포장하고 보도·차도 경계석을 정비한다.

'천호역세권 재건축 단지 주변 보행환경 개선(5억원)' 사업을 통해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천호역 주변 올림픽로 일대의 보행로를 정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강일동 완충녹지 통행로 조성(1억2000만원)'으로 버스 정류장과 학교 등 주요 시설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통행로를 조성해 주민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방축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정비(2억원)'를 통해 공원내 다목적구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 구민에게 더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명달가로공원 입양 협약식

서초구-한국세무사회

협약식에서 (가운데 왼쪽부터)전성수 구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14일 명달가로공원에서 한국세무사회와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 입양 협약식'을 열고, 공원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공원 입양은 지역내 기업이나 단체 등이 주민들의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제도다.

구는 2024년 HS효성과 서래골 근린공원 입양 협약을 최초로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한국세무사회와 명달가로공원에 대한 입양 협약을 맺으며 민관 협력형 공원 관리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로 전성수 구청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공원 입양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념촬영과 현장시찰을 함께하며 명달가로공원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향후 공원 환경 관리와 공익활동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명달가로공원은 명달로 주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공원이다. 기존에 단차가 있던 보도와 산책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휴게공간과 운동공간, 100m 맨발길, 수경시설, 정원 등을 새롭게 갖춰 도심 속 휴식과 산책, 운동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앉음벽과 휴게테이블을 설치해 쉼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목 아래에서 물소리와 새소리를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거듭났다.

한국세무사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세무정보 전달을 돕기 위해 운동·휴게 시설 기부에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원 청소와 환경 관리에도 함께 나설 예정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중랑구,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조기 가동

학교 일대등서 185개 운영

올해 6개 추가 설치 예정도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그늘막'을 조기 가동하며 주민 체감형 폭염 대응에 나선다.

구는 폭상 5월부터 운영하던 폭염 대책을 앞당겨, 최근 기온 상승과 강한 일사를 고려해 4월부터 그늘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을 중심으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대응한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과 학교 주변, 전통시장 일대등 폭염 취약 구간에 그늘막을 집중 배치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구에 따르면 현재 그늘막은 총 185개가 운영 중이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강화된 소재를 적용해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일부 구간에는 기온과 풍속을 감지해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스마트 그늘막을 운영해 강풍 및 야간 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올해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6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본격적인 무더위 시기에 맞춰 무더위쉼터 운영, 살수차 운행,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폭염 대응 정책을 함께 추진해 여름철 안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은평구, 공약 이행·정보공개평가 '최고등급'… 구민 소통·행정 신뢰 향상 성과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2026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도와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구는 경제, 교통, 기후, 환경, 안전, 교육, 복지,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70개 공약사업을 충실히 추진 중으로, 공약 이행률과 추진성과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등급(SA)을 받았다.

특히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 현황과 재정 집행 내역, 외부 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소통과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은평구는 민선 8기 구정비전 실현을 위해 ▲신경제·교통중심지 은평 ▲누구나 살고 싶은 은평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모두를 포용하는 은평 ▲문화예술 대표 도시 은평 등 5대 분야 70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보험료 지원

강남구, 상해·질병·수술비 보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고양이)을 입양한 구민에게 미리당 16만원 상당의 1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안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구는 국내 펫 전문 손해보험사인 '마이브라운'과 4월 8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 보험은 강남구민이 입양한 유기동물에 한해 연령을 따지지 않고 과거 질병 이력도 보지 않도록 설계했다.

주요 보상 내용은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루 15만원, 수술비는 200만원까지 보상한다.(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비율 70%, 총 보상한도 3000만원)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건당 1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동대문구, 올해 일자리 1만1927개 창출… 고용률 62.3% 취업자 16만명 목표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수립

지역 개발 연계 고용 확대

청년 취·창업 기반 강화도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26년 동대문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총 1만1927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구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지역 상권과 특화산업의 경쟁력, 청량리 일대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고용 수요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지역 안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일자리는 지난해 1만1351개보다 576개 늘어난 규모로, 구는 올해 고용률 62.3%, 취업자 수 16만1800명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구는 이를 위해 ▲청년 취·창업 기반 강화 ▲맞춤형 취업 지원과 민간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패션봉제·한방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 ▲청량리 등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연계 고용 확대 등 4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창업과 취업의 연결고리를 촘촘히 다질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유니콘'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센터를 대학가로 옮겨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등 지역내 대학과의 협력도 넓힌다. 대학가와 청년정책 거점을 가깝게 묶어 청년 유입을 늘리고,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민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성북구, '심우장' 인문 프로그램 내달부터 운영

성북구가 만해 한용운 선생이 거주했던 심우장에서 인문 프로그램 '공간 공감, 심우장'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심우장은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만해 한용운이 건립해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 있는 역사적 장소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는 5~10월 총 4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심우장, 소소한 일상'은 심우장에서 복사꽃 푸드테라피를 통해 만해의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5월8~10일과 9월18~20일 운영된다.

'소통의 공간, 심우장 애서(愛書)'는 만해 한용운의 문학 작품을 낭독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로 청년을 대상으로 6월22·29일, 7월6일 진행된다.

'인문 시(詩)그널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의 시와 이야기를 낭독과 음악, 플래시몹 공연으로 선보이는 고택 콘서트로 8월14·15일 개최된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관악구, 관악산 으뜸공원 야외 조각작품 전시

관악구가 관악산 으뜸공원에 야외 조각 전시 '도시가 정원, 자연이 미술관'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관악산 방문객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시 장소인 관악산 으뜸공원(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 인근)은 관악산의 주요 관문으로, 최근 등산객과 나들이객의 발길이 급증하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원내 주요 보행 동선을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국내 작가들의 조각 작품 7점을 배치했다. 금속과 석재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들이 배치됐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밝은 노란색으로 자유와 희망의 에너지를 시각화한 정국택 작가의 '나비의 꿈'과 누구나 앉을 수 있는 호박 형상의 벤치를 통해 작품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복을 나누고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조정 작가의 '복' 등이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용산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공론장 개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최근 용산청년지음(서빙고로 17)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공론장'을 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론장은 '이야기, 탐구하고 싶은 용산구 청년문제'를 주제로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과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용산구 청년 30여명이 참여했다.

공론장은 ▲쉬는 청년 ▲문화(컬처)·지역(로컬) ▲1인 가구 ▲청년 주거생활 ▲청년정책 홍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운영됐으며, 분과별로 두 가지 공통 의제를 논의했다. 첫 번째 의제 '요즘 우리 어떻게 지내?'에서는 참여자들이 일상과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민을 짚었다. 두 번째 의제 '그래 용산구, 우리의 생각을 들어줄래?'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의제 발굴 워크숍

성동구 왕십리제2동 주민자치회가 최근 2027년 주민자치회 의제 개발을 위한 '마을 탐방'과 '의제 발굴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은 자치회 관계자들이 마을탐방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성동구, 오늘부터 올 상반기 민방위 교육

성동구는 민방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성동구 소속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성동구 소속 민방위 대원 및 민방위 대장으로, 1~2년차 대원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4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년차 이상 대원은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에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1~2시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21일~6월3일)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방위 교육이 중단되므로, 상세한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충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송파구, 전통시장·상점가 8곳에 K급 소화기 보급

송파구가 주민들이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급 소화기'를 보급하고, '스마트 방역 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먹거리 점포가 밀집해 화재와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구는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8곳에 K급 소화기를 보급했다.

K급 소화기는 고온의 식용유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로, 식용유 표면에 비누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재발화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어, 튀김 요리가 많은 전통시장에 꼭 필요한 핵심 소방 비품이다.

구는 마천 중앙, 마천, 중남, 방이, 새마을, 석촌시장 및 문정동 로데오거리, 가락골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내 8곳 상점가 중 튀김기를 사용하는 점포 92곳을 선별해 'K급 소화기' 보급을 완료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